

#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aternal and Maternal Behavior on Adolescents'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정지영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조교수 김희화

Dept. of Child and Housing, Pusan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Ji Young J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Assist Professor : Hee Hwa Kim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paternal and maternal behavior on adolescents'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32 middle school students in grades 1-2.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was higher among 1st graders than 2nd graders. 2. Factors that affected adolescents'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differed depending on sex and grade. The boys' and girls'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was affected by father's academic-expectation, mother's attachment and guidance, and frequency of mother's academic-involvement, but father's academic-pressure affected only girls'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First and 2nd graders' 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was commonly affected by father's academic-expectation. However, for older adolescents, the demand for autonomy-encouragement of the mother is greater than that for direct involvement.

**주제어(Key Words):** 자율학습동기(autonomous academic motivation), 아버지양육행동(paternal behavior),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Jung, Dept. of Child and Housing, Pusan National Univ. 30 Jangjeon-dong, Guemjeong-g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1717 Fax: 82-51-513-7976 E-mail: amber79@hanmail.net

\* 이 논문은 2004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I. 서론

한국의 청소년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업과 관련된 것이다. 학업성취는 자신의 학업적 적응 뿐 아니라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자신의 정서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나아가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가 활용하지 않으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없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과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업동기 없이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임은미, 1998a). 따라서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학업동기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적극적인 학업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심리적 요소(이성진, 1996)로써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업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학업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외부의 자극인가 아니면 개인내부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Ryan과 Deci는 학업동기를 상호대립적인 동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자기결정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정도의 차이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김아영, 2002; 한순미, 2004).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인간의 행동이 외적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라기보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하길 원하는 인간의 선천적인 경향성(Deci & Ryan, 1985; Ryan & Connell, 1989)이다. 이러한 자기결정성이 학업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의미하는 자율학업동기에 관한 연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의 현 교육상황에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김아영, 2002; 임은미, 1998a; 1998b; 최병연, 2002).

Deci와 Ryan(1985)은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율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율학업동기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5학년, 8학년, 11학년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율학업동기에 관한 연구를 한 Zimmerman과 Martinez-Ponz(1990)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율학업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

으로 한 임은미(1998a; 1998b)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아영(2002) 및 김종덕(2001)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율학업동기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아영과 오순애(2001)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율학업동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율학업동기를 밝힌 연구의 결과들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종덕(2001)은 성별에 따른 자율학업동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임은미(1998a; 1998b)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Vallerand와 Bissonnette(1992)는 여학생의 자율학업동기가 남학생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대한 학년차와 성별차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과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므로 자율학업동기는 학업성취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중학교부터는 학업 면에서 교육방식과 교과내용 수준이 초등학교보다 어려워지고, 대학입시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됴에 따라 중학생이 된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에 따라 자율학업동기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한 초기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김영웅, 1994; 박춘성, 1999; 이성진, 1996). 하지만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업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염두하기보다는 연구의 편의상 따로 대상을 선정한 것이 대부분이다(김혜현, 1993; 성수현, 1996; 오미경, 1990). 하지만 오늘날은 자녀양육이 부부공동의 것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Collins와 Russell(1991; Rex & Sarah, 1993 재인용)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각각 다른 사회화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자녀의 학업은 아버지와 빈번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대한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밝혀보고자 한다.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그들 가족과의 일상생활 상호작용의 변화를 연구한 Larson, Richards, Moneta, Holmbeck과 Duckett(1996)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가족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양은 점점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시험성적과 등수가 제시된 성적표를 받게 되어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은 증가될 것이다. 줄어든 상호작용 시간 내에 증가된 관심을 보이게 되는 학업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의 빈번한 갈등을 야기한다(김수연과 정문자, 1997).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학업적 양육행동과 학업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자녀의 자율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비학업적, 학업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자율학습동기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 2학년 남·여학생 532명이었다. 연구대상 표집을 위해 부산시 소재 중학교 중 5개교를 유의표집하고, 표집된 학교 중 조사협조가 가능한 17개 학급의 학생 572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53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성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278명(52.3%), 여학생은 254명(47.7%)이었다. 학년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1학년 290명(54.5%), 2학년이 242명(45.5%)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대상인 청소년에게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율학습동기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업적, 비학업적 양육행동 척도이다. 각 척도의 구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자율학습동기

자율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임은미(1998a)의 「학업동기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임은미(1998a)의 「학업동기검사」는 Vellerand와 Bissonnett(1992)의 「학업동기척도」와 Vellerand, Pelletier, Blais, Briere, Senecal 그리고 Valleres(1992, 1993)의 「학업동기검사」를 토대로 하여 총 64문항으로 제작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편중된 응답을 보이는 문항 및 내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32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는 5점 척도이다. 응답범위는 32~160점이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97이었다.

####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이명진, 1997)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이기 때문이다(김성연, 1980). 각 양육행동 척도 구성과정 및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비학업적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학업적 양육행동척도는 선행연구들(김희주, 1997; 양미경, 1996; 오미경, 1990; 이숙, 1995; 조선휘, 1998; 최경순, 1993)에서 사용된 양육행동척도를 참고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기존척도 문항 중 학업과 관련된 문항 및 중복된 내용의 문항을 제외시키고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 요인분석 후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 영역 규명을 위해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varimax방식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 양

육행동은 각각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중 2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한 요인 부하치를 가지는 한 개의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요인명은 문항내용을 토대로 명명하였다. 4개 요인을 상호검토했던 결과, 일상생활감독과 권위주의적 통제 2개 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묶여졌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요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애정과 여가활동 그리고 생활지도로 묶여지고, 어머니의 경우 애정과 생활지도 그리고 여가활동으로 묶여졌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에 이뤄지는 상호작용방식에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은 자녀와 함께 참가하며 즐기는 여가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반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여가활동은 독립된 차원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은 예절이나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지도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뤄지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는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 자녀에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비학업적 양육행동은 각 행동에 아버지 및 어머니가 참여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에 응답하게 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양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문항 수, 설명변량, 그리고 신뢰도 검증에 위한 내적합치도 지수 Cronbach's  $\alpha$ 계수는 <표 1>과 같다.

## (2) 학업적 양육행동

본 연구의 학업적 양육행동 척도는 이재구(2000)의 「학업기대유형」과 임은미, (1998a)의 「부모행동검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재구(2000)의 검사는 Campbell(1994)의 Inventory of Parental Influence(IPI)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고, 임은미(1998a)의 검사는 Deci(1995)의 부모행동요인을 사용한 것이다. 두 척도의 문항 중 학업과 관련된 총 25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 후 사용하였다. 척도 하위 영역 구명을 위해 아버지 및 어머니 학업적 양육행동 25문항 각각에 대해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varimax방식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업적 양육행동이 각각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영역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업적 양육행동의 요인명은 문항내용을 토대로 학업기대, 학업압력, 학업직접관여, 학업자율성격려, 학업결과중시라고 명명하였다.

학업적 양육행동은 각 행동에 아버지 및 어머니가 참여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에 응답하게 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양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문항수, 설명변량, 그리고 신뢰도검증을 위한 내적합치도 지수 Cronbach's  $\alpha$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아버지·어머니의 비학업적 및 학업적 양육행동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 설명변량, 및 신뢰도 계수

		아 버 지			어 머 니		
		문항수	설명변량(%)	Cronbach's $\alpha$	문항수	설명변량(%)	Cronbach's $\alpha$
비학업적 양육행동	애정과 여가활동	9	19.83	.87		해당없음	
	애정과 생활지도		해당없음		8	17.90	.87
	생활지도	3	11.60	.69		해당없음	
	여가활동		해당없음		4	16.19	.75
	일상생활감독	3	10.87	.67	3	12.07	.75
	권위주의적 통제	4	11.68	.62	4	11.91	.64
학업적 양육행동	학업기대	3	22.65	.72	3	22.44	.70
	학업압력	7	14.74	.77	7	6.68	.80
	학업직접관여	4	6.79	.68	4	5.51	.68
	학업자율성격려	6	5.14	.75	6	38.14	.75
	학업결과중시	5	4.56	.75	5	4.64	.72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한 5개 중학교 1, 2학년 총 17학급의 남·여학생 532명이다. 조사는 대상 학급의 교과담당교사에게 질문지의 응답요령과 주의점을 설명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총 572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한 설문지 중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됐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53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별 분석방법은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의 성별과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성별, 학년에 따른 자율학습동기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 학년에 따른 자율학습동기의 평균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학습동기는 청소년

<표 2>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율학습동기의 평균차 검증

	집단구분	자율학습동기		t값
		M	(SD)	
성 별	남(n=278)	90.63	(22.69)	-1.3
	여(n=254)	93.28	(23.91)	
학 년	1(n=290)	94.88	(23.09)	3.29***
	2(n=242)	88.31	(22.07)	

\*\*\*p<.001

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29, p<.001). 1학년의 자율학습동기가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율학습동기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2.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 1) 성별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별 자율학습동기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자율학습동기는 아버지의 애정과 여가활동, 생활지도, 일상생활 감독, 학업기대, 학업직접참여, 학업 자율성격려 및 학업결과중시와 .14(p<.05)~.41(p<.01)

<표 3> 성별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남학생	여학생
아버지의 애정과 여가활동	.27**	.30**
아버지의 생활지도	.21**	.16*
아버지의 일상생활감독	.24**	.22**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통제	.15	-.16*
아버지의 학업기대	.41**	.23**
아버지의 학업압력	.11	-.19
아버지의 학업직접참여	.29**	.25**
아버지의 학업자율성격려	.21**	.36**
아버지의 학업결과중시	.14*	-.08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35**	.45**
어머니의 여가활동	.31**	.40**
어머니의 일상생활감독	.26**	.34**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06	-.05
어머니의 학업기대	.31**	.25**
어머니의 학업압력	.10	-.07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35**	.35**
어머니의 학업직접참여	.28**	.43**
어머니의 학업결과중시	.12*	.03

\*p<.05 \*\* p<.01

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여가활동, 일상생활감독, 학업기대, 학업자율성격려, 학업직접관여, 학업결과중시와 .12( $p < .05$ )~.35( $p < .01$ )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자율학업동기와 아버지의 애정과 여가활동, 생활지도, 일상생활감독, 권위주의적 통제, 학업기대, 학업직접관여, 학업자율성격려와 -.16( $p < .05$ )~.36( $p < .01$ )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여가활동, 일상생활감독, 학업기대, 학업자율성격려, 학업직접관여와 .25( $p < .01$ )~.45( $p < .01$ )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학업동기를 종속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 중 자율학업동기와 상관이 없는 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대하여 stepwise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남학생의 자율학업동기에 아버지의 학업기대( $\beta = .35, p < .001$ ),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beta = .22, p < .01$ ),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beta = .20, p < .01$ )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변인들은 남학생의 자율학업동기를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학업적 기대를 높게 할수록, 어머니가 학업에 직접적인 관여와 지도를 많이 하며, 애정과 생활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할수록 남학생의 자율학업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beta = .21, p < .001$ ),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beta = .21, p < .05$ ), 어

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beta = .20, p < .05$ ), 아버지의 학업기대( $\beta = .14, p < .05$ ), 아버지의 학업압력( $\beta = -.12, p < .05$ )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변인들은 여학생의 자율학업동기를 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학업에 직접적인 관여와 애정과 생활지도를 많이 할수록, 자녀 스스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수록, 아버지가 학업적인 기대는 높게 할수록, 아버지의 학업압력은 낮을수록 여학생의 자율학업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학년별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학년별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1학년과 2학년의 자율학업동기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학년의 경우 자율학업동기와 아버지의 애정과 여가활동, 생활지도, 일상생활감독, 학업기대, 학업직접관여 및 학업자율성격려와 .22( $p < .01$ )~.34( $p < .01$ )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여가활동, 일상생활감독, 학업기대, 학업자율성격려 및 학업직접관여간 .30( $p < .01$ )~.42( $p < .01$ )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 자율학업동기와 아버지의 애정과 여가활동, 일상생활감독, 학업기대, 학업자율성격려, 및 학업직접관여와 .22( $p < .01$ )~.34( $p < .01$ )의 유의미한 정적상

<표 4> 성별 자율학업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다중회귀분석결과

학 년 별	독 릫 변 인	B	$\beta$	$R^2$	F
남(n=243)	아버지의 학업기대	2.72	.35***	.28	31.84***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1.50	.22**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83	.20**		
여(n=204)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1.62	.21*	.32	18.73***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84	.21***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1.07	.20*		
	아버지의 학업기대	1.24	.14*		
	아버지의 학업압력	-.54	-.12*		

\* $p < .05$  \*\* $p < .01$  \*\*\* $p < .001$

〈표 5〉 학년별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1학년	2학년
아버지의 애정과 여가활동	.28**	.25**
아버지의 생활지도	.25**	.09
아버지의 일상생활감독	.22**	.23**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통제	-.03	-.03
아버지의 학업기대	.34**	.30**
아버지의 학업압력	-.07	.02
아버지의 학업직접관여	.27**	.22**
아버지의 학업자율성격려	.22**	.34**
아버지의 학업결과중시	-.03	.07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42**	.35**
어머니의 여가활동	.39**	.28**
어머니의 일상생활감독	.32**	.27**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10	-.01
어머니의 학업기대	.30**	.26**
어머니의 학업압력	-.04	.09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36**	.29**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33**	.37**
어머니의 학업결과중시	-.02	.15**

\*p<.05 \*\*p<.01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여가활동, 일상생활감독, 학업기대, 학업자율성격려,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및 어머니의 학업결과중시 .15(p<.01)~.37(p<.01)의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학습동기를 종속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 중 자율학습동기와 상관이 없는 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1학년과 2학년 각각에 대해 stepwise방법으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와 같다.

〈표 6〉에 따르면, 1학년의 경우 자율학습동기에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beta=.33, p<.001$ ), 아버지의 학업기대( $\beta=.23, p<.001$ ),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beta=.20, p<.01$ )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변인들은 1학년의 자율학습동기를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애정과 생활지도를 많을수록, 학업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학업관여와 지도가 많을수록, 아버지가 학업에 관한 기대가 높을수록 1학년의 자율학습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학년의 경우는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beta=.31, p<.001$ ), 아버지의 학업기대( $\beta=.25, p<.001$ ), 아버지의 일상생활감독( $\beta=.16, p<.01$ ), 어머니의 학업결과중시( $\beta=-.15, p<.01$ )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변인들은 2학년의 자율학습동기를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자녀 스스로 학업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학업자율성격려가 높고, 학업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행방에 대해 잘 알수록 2학년의 자율학습동기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 532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의 차이 그리고 청소년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 및 학업적 양육행동의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상대적

〈표 6〉 학년별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 년 별	독 릫 변 인	B	$\beta$	R <sup>2</sup>	F
1학년(n=250)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	1.45	.33***	.29	33.99***
	아버지의 학업기대	2.03	.23***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1.48	.20***		
2학년(n=202)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1.41	.31***	.28	19.44***
	아버지의 학업기대	2.00	.25***		
	아버지의 일상생활감독	1.26	.16**		
	어머니의 학업결과중시	-1.06	-.15**		

\*\*p<.01 \*\*\*p<.001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하겠다.

첫째, 자율학습동기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학교 남·여학생의 자율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는 자율학습동기에 남·여간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김종덕(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자율학습동기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임은미(1998a, 1998b)의 연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학생이 높은 자율학습동기 수준을 보인다는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 대상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한정됨을 감안해볼 때 학년이 높을 경우 여학생의 자율학습동기가 남학생보다 높지만,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서는 남·여간 자율학습동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의 자율학습동기가 1학년의 자율학습동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국내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율학습동기 수준이 감소함을 밝힌 김종덕(2001)과 김아영(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율학습동기 수준이 낮아짐을 보고한 임은미(1998a; 1998b)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5학년, 8학년, 11학년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율학습동기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한 Zimmerman과 Martinez-Ponz(1990)연구결과와 Ryan과 Deci(1985)의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율성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자율학습동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과의 차이는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로 이뤄지는 한국교육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학업행동을 하는 청소년보다는 교사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업에 임하게 되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자율학습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율학습동기와 학업성취는 정적상관을 가진다(임은미, 1998a).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을 자율학습동기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업적, 비학업적 양육행동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둘째, 성별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 및 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부분적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학업기대,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는 남녀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공통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 아버지의 학업압력은 여학생의 자율학습동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업기대가 남아, 여아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아버지의 학업기대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Wilson과 Wilson(1991)의 결과를 연관시켜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동등한 학업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기대는 남녀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 발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학업압력은 여아에게 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mpbell과 Mandell(1990)의 부모의 비합리적인 기대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부모의 학업에 대한 압력이 과도할수록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다 지각하는데(Maccoby & Matin, 1983), 특히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을 공부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학업에 대해 과도한 압력을 할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별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 및 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업기대는 1, 2학년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 발달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1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과 생활지도와 학업직접관여가 영향을 끼치나, 2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학업자율성격려는 정적으로, 학업결과증시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상생활감독 또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년의 경우 아버지는 학업기대 높게 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생활과 학업생활 모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직접적인 지도와 정보제공을 해야 하지만, 2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도보다는 스스로에게 믿고 선택을 부여하는 학습자율성 격려와 아버지의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각하게 하는 것이 자율학습동기를 높이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0세에서 16세를 대상으로 초기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해 연구한 Steinberg와 Silverberg(1986)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성은 증가하며, 특히 6학년에서 8학년 사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고 제시한다. 이 결과와 본 연구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간 자율학습동기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연관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학년이 증가하면서 자율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인 관여와 정보의 제공보다는 자녀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하면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임은미(1998a)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부모의 학업관련 정보제공과 자율성 격려행동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결과중시가 학습성취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재구(2000)의 연구와 일치함을 보인다.

성별, 학년별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학업적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아버지의 비학업적 양육행동보다 학업적 양육행동 영역의 영향이 더 크며, 특히 학업기대는 자녀의 성별과 학년에 관계없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업적 양육행동 중 학업직접관여의 영향이 크고 비학업적 양육행동 중 애정과 생활지도의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자율학습동기에 아버지의 학업기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습유능성에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기대가 더 중요

한 영향을 끼친다는 Phillips(1987)의 연구결과와 자녀의 학습유능성과 아버지의 학업기대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어머니의 학업기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온 McGrath와 Repetti(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자율학습동기에 어머니의 학업직접관여와 애정과 생활지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학업과제를 하는 것과 같은 학업에 관한 관심이 청소년의 학습성취를 높여준다는 Epstein(1987)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성취가 높아진다는 Sartor와 Youniss(2002)의 연구결과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 및 학업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율적 학습동기 증진을 위한 부모의 상이한 역할 상을 제시해 준다. 즉,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어머니는 충분한 애정을 토대로 자녀의 학습목표를 이루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지도를 하며, 학업생활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해주거나 함께 목표를 세우는 등의 상호작용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 및 학업생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양육행동의 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횡단적 접근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의 자율학습동기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학업적 및 학업적 양육행동을 인과관계로 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종단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율학습동기는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연구이므로 가정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자율학습동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아영, 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영웅(1994).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중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1980).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3.
- 김종덕(2001). 부모의 학습참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현(199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학동기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춘성(1999). 가정환경변인과 학업학습시간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수현(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6-101.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귀인성향과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1996). *교육심리학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이 숙(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1998a).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은미(1998b). 부모의 자율성증진행동과 청소년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6, 133-150.
-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1999). 청소년의 성별로 본 사회화와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지*, 37(9), 103-127.
- 조선화(1998). 아버지의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3). *청소년문제와 상담실태분석: 국내외청소년 상담현황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4(2), 115-136.
- 최병연(2002).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이론의 교육적 적용. *교육문제연구*, 16, 165-184.
- 한순미(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Campbell, J. R., & Manddel, F. (1990). Connection math achievement to parental influence.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15, 64-7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and London; Plenum.
- Epstein, J. L. (1987). Parent involvement; What research says to administrator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19, 119-136.
- Larson, R. W., Richard. M. H., Moneta, G., Holmbeck, G., & Duckett, E. (1996). Change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 10-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744-754.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NY; Wiley.
- McGarth, E. P., & Repetti, R. L. (2000). Mothers' and fathers'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nd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academic compet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713-723.
- Phillips, D. A. (1987). Socialization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mong high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310-321.
- Rex F., & Sarah N. (1993).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critical dimensions in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213-221.
- Ryan, R. M., Connell, J. P., & Deci, E. L.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Sartor, C. E., & Youniss,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al involvement and identity achievement during adolescence. *Adolescence*, 37(146), 221-235.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rusty, J. (1998). Family influence on educational expectations of late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1(5), 260-270.
- Vallerand, R. J., & Bissonnette, R. J.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 Wilson, P. M., & Wilson, J. R. (1991). Environm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educational aspirations: A logistic transform model. *Youth & Society*, 24(1), 52-70.
-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 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 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

(2004년 10월 29일 접수, 2005년 8월 16일 채택)